

# 광주광역시, '光융합산업' 재도약 시동

### 기관·대학·기업 '미래 포토닉스 상생협의회' 출범

### 광반도체·광센서등 기술개발·사업화·실증 맞춘

광주광역시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광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인 '광반도체'를 중심으로 광융합산업 재도약에 나선다.

시는 12일 한국광기술원에서 광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포토닉스(광융합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의회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전남대, 지역 주요 광융합기업 10개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기업들은 광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생협의회는 기술 개발(R&D)부터 인력 양성,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우선 정책 가이드 라인과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광기술원(KOF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환권연구본부 등 연구기관은 광반도체 및 광센서 등의 공동 연구와 시험·인증을 담당한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는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무

맞춤형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기초 원천기술 연구를 통해 산업의 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용 광반도체, 자율주행용 라이다(LiDAR) 센서, 6세대 이동통신(6G) 광트랜시버, 우주주방용 광학 제품 등 미래 유망 산업과 '기술 융합'을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광융합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 시제품의 성능 검증과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광주·정환 기자 jcrso@siminibo.co.kr

# '농촌 왕진버스' 마을 구석구석 건강 배달

### 청양군, 노인·취약계층 1차 의료서비스 강화

### 만성질환 완화·노쇠예방 정기방문진료 호평

충남 청양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왕진버스'와 군 시책인 '찾아가는 의료원'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일차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 청양군 지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방의원 방문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진료를 넘어 만성질환 완화와 노쇠 예방을 위한 정기 방문 진료를 병행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휴일연속도 불구하고 농촌 왕진버스는 목면 안도리 마을회관을 찾았다. 의사, 간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팀은 마을회관에 임시 진료소를 꾸리고 주민들을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를 시작으로 ▲내과·한방 진료 및 상담 ▲정·약 처방 ▲정신분류 진료 ▲치매 및 무언어장애 방편 방문 등 다양한 수준의 개인별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은 원격협진, 방문보건, 통합돌봄 사업과 긴밀히 연계해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복지 부서의 협력해 돌봄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등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최적화된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양·최복 기자 cbg@siminibo.co.kr



한국광기술원에서 열린 '미래 포토닉스(광융합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화 굿즈' 디자인 보호전략 만든다

### 강진한국민화유지사업 '올이트'

###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선정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유지사업의 공식 이트숍 '올이트'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세계 속 K-컬처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 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된 정부 지원 사업이다.

한국민화유지사업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박물관이 소장한 5000 여점의 조선시대 진보 민화 유물을 기반으로 개발된 독창적인 디자인 상품들에 대해 전문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민화유지사업의 산하 브랜드인 '올이트'는 그동안 민화 소장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1300여 점에 달하는 민화 굿즈, 도서, 교구, 그리기 용품 등을 직접 개발하며 민화의 대중화와 실용화를

진도해 왔다. 특히 최근 발견된 인기를 끌고 있는 민화 때오름 꽃잎이 책과 같은 아이디어 상품들은 민화 IP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민화유지사업은 민화 IP를 활용한 상품 디자인의 관리(디자인권 출원 등) 및 분쟁 예방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 민화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고, 모방 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정환 기자 jcrso@siminibo.co.kr

# 해남군,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률 93.7%

### 총 32억... 95% 지역화폐 수령

### 전남 해남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결과 대상자의 93.7%인 5628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

상위계층으로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총 32억여원 규모로, 수령률 95%가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금을 받았다.

특히 군은 유튜브 부당 원화와 사용 편의를 위해 연 매출 30여원을 초과하는 주유소 및 LPG 충전

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모든 주유소에 대한 가맹 등록 요청을 완료했으며, 이번 조치로 주유소 이용시 발생했던 결제 재안이 사라져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지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재개된다.

해남·정환 기자 jcrso@siminibo.co.kr

운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상품권 앱 '작'(chak)으로, 온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0일 기준 군에 주소록 등 문건 소독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편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군은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원 금액이 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50만원, 일반대상자 25만원이다.

#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5곳 신설

### 전남도, 20일까지 운송사 모집

### 1곳당 최대 6000만원 지원키로

### 전남도가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운영업체 5곳을 모집한다.

### 간추린 뉴스

서 전남 농수산식품을 상시 판매하는 공간이다. 김, 전복, 오징어, 수산가공품 등 다양한 전농 제품을 해외 소비자가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 농수산식품을 수입·판매하고 있거나 취급 가능한 해외 수입업체와 현지 유통업체(벤더)다.

도는 판매장마다 지역 10개 기

업 이상, 20개 이상 전남 농수산식품을 입점·판매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 행사비를 상설판매장 운영비의 70% 범위에서 1곳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도 수출진흥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홍승호 기자 whng04@siminibo.co.kr

업 이상, 20개 이상 전남 농수산식품을 입점·판매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 행사비를 상설판매장 운영비의 70% 범위에서 1곳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도 수출진흥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홍승호 기자 whng04@siminibo.co.kr

# 보성군, 전통차 음식 만들기 단체 체험관광 지원

### 전남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통차(음식)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은 한국차박물관, 가막대다원, 녹차장캐코, 보림재다, 임방문다원 등 지역내 23개 지정 체험장에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차 만들기 및 차 체험, 차 음식 만들기, 차운명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며, 군은 차(음식) 만들기 체험비 1인당 2만원 또는 차량 임차료(거리별 40~55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 지원한다.

### 홍성군, 위기 장애아동 가족 긴급 TF 가동

이 사업은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한국차박물관, 가막대다원, 녹차장캐코, 보림재다, 임방문다원 등 지역내 23개 지정 체험장에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차 만들기 및 차 체험, 차 음식 만들기, 차운명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며, 군은 차(음식) 만들기 체험비 1인당 2만원 또는 차량 임차료(거리별 40~55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 지원한다.

보성·홍승호 기자 whng04@siminibo.co.kr

# 전라남도내 이만·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업무 협약



이만·외국인 정착 지원 협약

정충국가중심센터는 최근 전남 이만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지역내 이만 외국인 인정센터 지역사업자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주민과 이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와 상담·복지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은 업무협약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보 교관을 통해 가정환경과 보호 여건을 면밀히 파악한다.

회의 결과,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정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 종합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대상 아동들을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했다.

홍성·최복 기자 cbg@siminibo.co.kr

# 경남도, 기형형 공익직불제 기한 내 신청 당부

### 경남도는 2026년 기형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내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ARS(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비대면 신청은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지급 대상은 기존 쌀·밭·조경관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인 주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없다.도는 신청 마감 이후 지역 검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순천시, 지역화폐 부정유용 내달까지 집중 단속

### 전남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상 사례를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품권 부정유용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품권 환전 내역과 이상거래 의심자료 등을 분석하고 필수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대형 매출금품대 많은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7기법점이 아닌 자를 위한 환전 대행업 ▲상품권 재판매 ▲7기법점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이다.

부정유용이 적발될 경우 취소사망상품권 이용 환불요청 관련 법률에 따라 가법정 등록 취소, 일정 기간 행정처분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상품권 부정환전 등 위반행위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bo.co.kr

### 영양군, 광주광역시서도 동농상생 직거래장터

전남 영양군이 광주 대단지 아파트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동농상생 유통모델 확대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광주 계림아파트3K스튜디오 아파트장에서 '영양군 & 계림아파트3K스튜디오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가와 업체 20곳이 참여해 축산품과 장어, 전갱주, 무화과, 대삼계, 친환경 쌀 등 영양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특히 원산식품과 민물잡자수협, 대방어전망각 등 7개 업체가 새롭게 참여하며 특색을 확대했다. 장터를 찾은 주민들은 영양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 기간 총매출은 7465만원으로 지난 2025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양·정환 기자 jcrso@siminibo.co.kr

경남도는 2026년 기형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내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ARS(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비대면 신청은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기존 쌀·밭·조경관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인 주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없다.도는 신청 마감 이후 지역 검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창원·김정환 기자 kjj@siminibo.co.kr

### 순천시, 지역화폐 부정유용 내달까지 집중 단속

전남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상 사례를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품권 부정유용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시기 민생회복지원금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류 순천사랑상품권 유통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이 분배 취지인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